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치유와 영적전쟁의 핵심 성경: 창세기 28장 10~22절

Tag: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 하나님이 되실 것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만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28:10-22)

야곱 이야기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리얼하다. 창세기에는 네 명의 족장이야기가 있는데 야곱 이야기가 가장 막장스러운 면이 있다.

쌍둥이 이야기, 팔죽 이야기,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오늘 읽은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그나마 가장 거룩한 이야기(이방 나그네에게 가장 큰 힘이 됨), 데릴사위로 장가가기 위해서 14년을 품꾼처럼 일한 이야기-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희생, 결혼 첫날밤에 장인영감에게 속은 이야기-가장 처절한 배신-결코 양갓음 할 수 없는 배신, 두 아내의 아들 낳기 경주 이야기, 거짓말의 달인 장인 영감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이야기, 축산업자로서 기발한 번식법을 연구한 이야기, 야반도주 이야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이야기, 형 에서와의 재회 이야기.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장 처절한 이야기) 등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

다른 족장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그 에피소드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얼핏 보면 이야기들의 내용이 매우 세속적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교했을 때 경건한 삶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전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몇가지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다.

1. 경쟁구도; 형 에서와의 경쟁구도(심지어 텃 속에서부터), 두 아내의 경쟁구도-아들 낳기 경쟁, 장인과의 경쟁구도-재산경쟁, 천사와의 씨름-축복 경쟁

2. 거짓말의 저주;(조상들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요!)팔죽을 이용한 거짓말, 엄마와 함께 아빠 속이기, 라반의 거둬지는 속임수, 야곱의 맞불작전, 야반도주, 세겔죽속 멸살, 11아들의 거짓말

3. 삶에 대한 열심; 장자권 육심-택 속에서; 팔죽 이야기도 장자권 이야기,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장자권, 라반의 집에서, 압복강 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4. 야곱편에 서신 하나님; 성실하게 야곱과 동행하심. 위기에서 항상 도우심-벤엘에서, 양떼의 번식, 야반도주시에 라반에게 나타나심. 압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처절한 씨름.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편에 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훨씬 많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신앙전통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야곱. 가장 넘을 수 없는 형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처절한 씨름을 했다. 거짓말이나 경건이냐의 싸움.

야곱의 내면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생존에 대한 갈망-거짓말의 본점. 야곱과 에서의 경쟁구도를 설정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통한 야곱 길 들이기

경쟁구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 열심히 임하게 됨. 신앙 유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됨.

그러나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을 사용함. -어떻게 보면 가족의 저주. 야곱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거짓말. 거짓말 때문에 삶은 2배 더 고난스러워짐.

하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거룩한 민족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이 완성됨.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 많은 함정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파 놓았지만(거짓말 함정-거짓말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지 말고, 극복해야 할 전쟁이라고 믿어야 함. 어쩔 수 없이 이 거짓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믿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싸워 이겨야 함.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거짓말의 저주

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휼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함정들을 무산 시키심. 결국 신앙 유산이 야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함.

<찬양예배>

제목 :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경: 사무엘하 12장 15~23절

Tag: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19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23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

## 나라 (삼하12:15-23)

밧세바의 아들은 매우 나약한 아이였을 것이다.

-두 부모가 죄악중에 잉태함. 두 부모의 영적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죄책감이 극심했을 것임. 우리야의 충성심이 높을수록 다윗과 밧세바의 죄책감은 높아져갔다.

-우리야를 죽이는 과정도 밧세바에게는 피를 말리고 심장이 멎을만한 치명적인 과정이었을 것.

-아이는 탯속에서부터 매우 불안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발육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영혼을 빨리 소환해야겠다고 결정하셨고,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만에 숨을 거두고 만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과정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 일련의 저주 가운데 자신의 가문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마귀가 자신의 가정을 유린한 모습, 자녀들이 마귀의 꾀에 빠져가는 모습, 정권 다툼으로 칼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 등.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처절한 피비린내를 감당할 길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문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산실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다윗은 부랴부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다윗은 다가오는 저주를 예견하고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이 택한 방법은 철저한 회개와 목숨을 건 기도밖에 없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었다. 자신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맞바꾸었다. 아이가 빨리 죽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것이고, 아이가 빨리 죽으면 자기는 살아남는 것이고, 아이가 빨리 병에서 나오면 둘 다 사는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 다윗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사명감을 깨달은 다윗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이 금식하는 목적이었다.

-그는 아이를 살리는 것도, 자신이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목동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시고, 과분한 은총으로 왕의 사위가 된 것, 그러나 마귀가 갖은 모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한 것,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왕국을 차지하게 된 것, 이렇게 하신 이유는 메시아 대망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무산될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기기 위한 기도를 계획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